

# 임부의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태교실천에 미치는 영향

성미혜<sup>1</sup> · 주경숙<sup>2</sup>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 건강과학연구소 부교수<sup>1</sup>, 문경대학 간호과 전임강사<sup>2</sup>

## Relationships among Marital Satisfaction, Spousal Support and Practice of Taekyo in Pregnant Women

Sung, Mi-Hae<sup>1</sup> · Joo, Kyung Sook<sup>2</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 Institute for Nursing Science, Inje University,

<sup>2</sup>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Munkyeong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marital satisfaction, spousal support and practice of Taekyo among pregnant women.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use of questionnaire surveys with two hundred and eighty-three pregnant women at several hospital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and Daejeon city from October 2008 to April 2009. Contents of questionnaire included marital satisfaction, spousal support and practice of Taekyo.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for data analysis using SPSS/WIN 17.0 program. **Results:** Degree of marital satisfaction, spousal support, and practice of Taekyo showed the high ranking among pregnant wome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rder of fetus, need for Taekyo, and time in Taekyo.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spousal support, and practice of Taekyo.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practice of Taekyo was connected with marital satisfaction, order of fetus and time in Taekyo. The total explanatory range was 29.3%. **Conclusion:** There is a need for multidimensional strategy in improving marital satisfac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foundation for maternal nursing education program and can be developed for practice of Taekyo.

**Key Words:** Marriag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Prenatal care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임부는 태교를 통해 태아를 인간으로 인식하고 태아와의 정서적 교류를 함으로써 상호애착을 형성한다(Ha, 2004). 태교는 중국의 고대사회에서 시작하여 고려, 이조시대를 거치면서 전통사회의 규범으로 지켜져 왔다. 현대에 들어와서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태교는 수술적 또는 미신적 민속의 한 형태로 밀려나면서 다소 퇴색하는 경향

이 있었다(Mun & Choi, 2002).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태아학의 발전과 더불어 임신 중 자궁 내 환경이 사람의 지능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Delvin, Daniels & Roeder, 1997)가 발표되고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이론, 육아법 등이 더 전인적이고 총체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태교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Ahn, 2001). 최근 서양에서는 동양의 태교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노력이 계속 진행 중으로(Shin, 2000), 태아를 하나의 가능성 있는 인격체로 인식하고 태아에게 바람직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태아의 심신건강은 물론 출생 후의 심신건강까지 도

**주요어:**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 태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ung, Mi-Hae,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633-165 Gaegeum-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25, Fax: 82-51-896-9840, E-mail: nursmh@inje.ac.kr

투고일: 2011년 1월 7일 / 1차심사완료일: 2011년 2월 17일, 2차심사완료일: 2011년 2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2월 28일

모할 수 있다는 태교 본래의 목적은 태아와 임부의 건강을 위한 산전 간호 목적과 부합된다(Shin & Koh, 2002). 이러한 태교는 본질적으로 임부의 포괄적인 자가 건강관리 행위로서 임부가 산전관리 시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태교는 건강관리 체계의 변화를 최소화시키면서 임부의 자가 관리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Mun & Choi, 2002). 따라서 간호사는 태교실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임부가 태교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태교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임부들은 태교의 과학적 검증여부와 관계없이 경험적 준거에 의해 태교를 실천하였다(Kim, 2000). 출산여성의 태교실천과 관련요인에 관한 Ahn (2001)의 연구결과를 보면, 대상자의 83%가 태교를 실천하였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임신 중 태교를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태교를 하고 있어, 이들 여성이 태교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태교실천 관련연구들(Ahn, 2001 ; Kim, 2000; Mun & Choi, 2002; Shin, 2000)을 보면, 임부의 태교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 특성 중 산전관리, 월수입, 결혼만족도 및 배우자 지지 등과 임신의도, 임신수용, 피로정도, 스트레스정도, 자아존중감, 태교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관련요인이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였지만 단순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는 것으로 각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결혼만족도 개념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부부간 상호작용의 전 영역, 더 나아가서는 자녀 및 친척과의 관계와 같은 결혼생활의 전 영역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Ha, 2004).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매우만족이 35.3%, 만족이 62.7%로 거의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비하여 남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Ha, 2004), Nam (2010)의 연구결과를 보면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교실천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지지 요인은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 내에서 단순하게 만족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측정되어있어, 임부의 태교실천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신뢰하는데 제한이 되고 있다.

태교는 모든 가족원들이 해야 하지만, 남편은 임부 다음으로 태아와 가장 근접한 사람이며, 태아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흡연 뿐만 아니라, 남

편과 아내의 관계도 중요하다(Ha, 2004). Burney (2001)는 그의 연구에서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에 비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를 출산할 위험성이 약 2.5배나 높으며, 자주 공포심에 빠지며 빈약하고 신경질적인 아이가 될 확률이 5배에 달한다고 하였다. 태교는 임신부 자신이 해야 할 몫이 가장 크지만 사실은 임신부 혼자만의 힘으로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가족이 협력함으로써 더 잘 될 수 있다(Ha, 2004). 임부의 결혼만족도와 태교실천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Ha, 2004; Yoo, 1992)에서 임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임부의 태교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고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태교는 임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임신 부부가 함께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부가 임신기간 동안 태교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임부의 결혼만족도 및 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임신과 분만이 임부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겪어가는 경험임을 생각해 볼 때 태교에서의 남편의 지지 또한 매우 중요한데(Mun & Choi, 2002), 한국의 전통 태교에서도 특히 아버지의 부성태교를 중시하였다. 태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부부 모두의 관계에 달려 있으며, 혼자서는 완전한 태교를 할 수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임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임신 중 지지도가 태교실천에 중요한 영향인자임을 밝히고 있다(Yoo, 1992). Shin (2000)은 결혼생활 만족도가 태교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결혼생활이 만족할수록 태교인식과 실천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임신 중 배우자 지지는 결혼만족도와 함께 임부의 태교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순히 만족여부만을 가지고 태교실천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전까지 수행된 태교실천에 대한 연구(Kim, 2000; Shin, 2000)에서는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지지를 일반적 특성 중에서 다루었으며 단순한 척도를 가지고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들 변인들을 태교실천의 중재변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를 활용하여 임부의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이들의 태교실천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고 이들 변인이 태교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태교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부의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와 태교실천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임부의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 및 태교실천을 파악한다.
- 임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교실천의 차이를 파악한다.
- 임부의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 및 태교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임부의 태교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3. 용어정의

### 1) 결혼만족도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행복과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Burr, Leigh, Day, & Constantine, 1979), 본 연구에서는 Spanier (1976)가 개발한 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Lee (2002)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2) 배우자 지지

남편이 부인에게 제공하는 물리적, 심리적, 인간관계적, 정서적 도움으로(Kim, 2008), 본 연구에서는 Jang (1989)이 개발한 배우자 지지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3) 태교실천정도

태아의 기능발달을 촉진하고, 또한 모친의 정신면에서의 안정이나 태아와의 연결을 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시도를 하는 것으로(The Great Encyclopedia of Nursing Science, 1995), 본 연구에서는 Yeon (200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283명으로, 이들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2개 대학병원과 대전에 소재하는 일개 종합병원에서 산전관리를 받는 임부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편의추출되었다. 표본 수는 G\*power (Erdfelder, Faul, & Buchner, 1996)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3개의 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medium effect size 0.15, 검정력을 90%로 계산했을 때 99명이 결정되어 표본 수는 충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도구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12문항, 결혼만족도 32문항, 배우자 지지 10문항, 태교실천 21문항 등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결혼만족도

Spanier (1976)가 개발한 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Lee (2002)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부간의 의견일치 13문항, 관계에 대한 만족 10문항, 응집력 5문항, 애정표현 4문항 등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중 애정표현 2문항을 ‘예’에 0점, ‘아니오’에 1점을 주어 계산하였으며, 관계에 대한 만족 2문항과 응집력 1문항은 0~4점까지, 그 외의 나머지 문항은 0~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은 0~146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만족하고 갈등이 적고, 서로 만족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통합되어 있고, 잘 적응에 높은 질의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Lee (200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85였다.

### 2) 배우자 지지

Jang (1989)이 개발한 배우자 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으며, 본 연구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부의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지지 및 태교실

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93이었다.

### 3) 태교실천

Yeon (2001)이 태교실천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내용은 음식섭취 2문항, 기도생활 1문항, 지식습득 1문항, 적선이나 적덕행위 2문항, 태아와 상호작용 5문항, 심신관리 7문항, 금기행위 3문항 등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태교에 관한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90이었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각 병원의 간호부에 공문을 보내어 협조를 구한 후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의 임부로 임신 관련 합병증이 없으며 국문해독에 장애가 없는 여성이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 경우 철회할 수 있음을 재차 설명하여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로 수집된 자료는 301부였으나 자료가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283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임부의 일반적 특성,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 태교실천은 빈도 및 기술통계로 산출하였다.
- 임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교실천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임부의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 태교실천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임부의 태교실천에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Table 1), 연령은 30~34세가 48.1% (136명)로 가장 많았으며 30세 미만과 35세 이상은 각각 27.6% (78명), 24.4% (69명)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 47.0% (133명)로 가장 많았는데 직업형태는 주부가 56.9% (16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직이 18.4% (52명), 사무직이 15.2% (43명) 순이었다. 월수입은 100~300만원이 67.1% (151명)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가족구조는 부부가족이 90.1% (255명)로 대부분이었다. 결혼기간은 1~3년이 35.3% (10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2개월 이하가 28.6% (81명), 5년 이상이 18.7% (53명) 순이었다. 동거기간은 94.7% (268명)이 동거를 하고 있었으며, 태아순위는 첫째가 67.5% (191명)로 가장 많았다. 임신희망은 부부가 원한 경우가 95.4% (270명)로 대부분 부부가 임신을 원하였으며, 기대성별은 구분 없음이 49.0% (141명)로 가장 많았다. 태교필요성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7.0% (133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매우 필요하다'가 45.2% (128명)이었다. 태교 시기는 '임신이후시기'가 51.6% (146명)로 가장 많았고 '예비부부시기'가 24.4% (69명), '신혼시기'가 19.4% (55명) 순이었다.

### 2. 대상자의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 및 태교실천정도

대상자의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 및 태교실천정도를 보면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결혼만족도는 32문항으로 가능점수 0점에서 146점까지의 범위에서 평균 103.9점이었다. 측정점수의 범위는 최하 53점에서 최고 132점까지로 나타났다.

배우자 지지정도는 가능점수가 10점에서 50점까지의 범위에서 평균 42.2점이었다. 태교실천정도는 가능점수가 21점에서 84점까지의 범위에서 평균 66.7점이었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교실천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교실천정도의 차이를 보면(Table 1), 태교실천정도는 태아순위( $F=4.10, p=.018$ ), 태교필요성( $F=18.60, p<.001$ ), 태교시기( $F=3.62, p=.014$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

**Table 1.** Practice of Taekyo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8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Scheffe <sup>1</sup>
Age (year)	< 30	78 (27.6)	67.7±7.7	1.11	.331	
	30~34	136 (48.1)	66.4±7.1			
	≥ 35	69 (24.4)	66.0±7.5			
Education	≤ Middle school	51 (18.0)	66.3±8.6	0.07	.974	
	High school	74 (26.1)	66.6±6.5			
	College	133 (47.0)	69.9±7.5			
	≥ Master	25 (8.8)	66.6±6.6			
Career type	Homemakers	161 (56.9)	66.9±6.7	1.95	.121	
	Office	43 (15.2)	65.4±8.4			
	Professional	52 (18.4)	68.3±8.6			
	Etc	27 (9.5)	64.6±6.3			
Monthly income <sup>†</sup> (10,000 won)	< 100	13 (5.8)	68.4±10.4	0.60	.546	
	100~300	151 (67.1)	66.3±6.7			
	301~500	61 (27.1)	67.0±8.4			
Family structure	Nuclear	255 (90.1)	66.4±7.1	-1.76	.080	
	Extended or sibling	28 (9.9)	69.1±9.1			
Length of marriage (monthly)	≤ 12	81 (28.6)	67.2±6.5	0.58	.624	
	13~36	100 (35.3)	67.1±7.7			
	37~60	49 (17.3)	65.7±7.1			
	≥ 61	53 (18.7)	66.1±8.2			
Length of cohabit	Cohabitated	268 (94.7)	66.6±7.4	-0.47	.637	
	Weekend	15 (5.3)	67.6±6.5			
Order of fetus	First <sup>a</sup>	191 (67.5)	67.5±7.2	4.10	.018	a > b, c
	Second <sup>b</sup>	76 (26.9)	65.1±7.7			
	Third <sup>c</sup>	16 (5.7)	63.8±5.6			
Planned pregnancy	Both	270 (95.4)	68.4±8.8	0.80	.421	
	One	13 (4.6)	66.6±7.3			
Expected gender	Female	89 (31.5)	67.7±7.3	0.25	.775	
	Male	53 (18.7)	67.3±8.5			
	Not-demar.	141 (49.8)	66.4±7.0			
Need for Taekyo	Very need <sup>d</sup>	128 (45.2)	69.4±7.5	18.60	< .001	a > b, c
	Need <sup>b</sup>	133 (47.0)	64.8±6.2			
	Common <sup>c</sup>	22 (7.8)	62.3±7.9			
Timing of Taekyo	Before marriage	69 (24.4)	68.6±8.2	3.62	.014	
	New marriage	55 (19.4)	66.4±5.9			
	Post pregnancy	146 (51.6)	65.6±7.1			
	Others					

<sup>†</sup>No response excluded.

한 결과를 보면, 태아순위가 첫째인 경우 둘째, 셋째보다 태교실천정도가 높았으며, 태교 필요성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필요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태교실천정도가 높았다. 태교시기는 동일집단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대상자의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 및 태교실천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 및 태교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Table 3과 같다.



결혼만족은 배우자 지지( $r=.60, p<.001$ ), 태교실천( $r=.46, p<.001$ )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배우자 지지와 태교실천( $r=.31, p<.001$ )도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혼만족도 4개의 하위영역과 태교실천 간의 상관관계에서 관계만족을 제외한 3개의 하위영역에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5. 태교실천 영향요인

태교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태교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태교실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태아순위, 태교시기 등의 변수와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 등의 변수를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대상자의 태교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만족도 21.7%, 태교필요성이 6.6%, 태아순위가 1.0%를 설명하여 총 29.3%를 설명하였다.

**Table 2.** Degree of Marital Satisfaction, Spousal Support, and Practice of Taekyo (N=283)

Variables	Min	Max	M±SD	Item mean
Marital satisfaction	53	132	103.9±13.8	
Spousal support	16	50	42.2±6.2	4.2
Practice of Taekyo	51	84	66.7±7.4	3.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Spousal Support, and Practice of Taekyo (N=283)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Spousal support
	r (p)	r (p)
Spousal support	.60 (<.001)	
Practice of Taekyo	.46 (<.001)	.31 (<.001)

**Table 4.** Predictors of Practice of Taekyo (N=283)

Variables	B	SE	β	t	p	Cum. R <sup>2</sup>	F (p)
Constant	51.76	3.72		13.91	<.001		
Marital satisfaction	0.21	0.02	.40	7.33	<.001	.217	71.38 (<.001)
Need for Taekyo	-3.29	0.64	-.27	-5.13	<.001	.283	51.07 (<.001)
Order of fetus	-1.48	0.69	-.11	-2.14	.003	.293	36.05 (<.001)

Cum. R<sup>2</sup>=Cumulative R<sup>2</sup>.

## 논 의

Gottman (2002)은 연령, 직업, 교육과 같은 부부의 상황요인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Cohen과 Bradbury (Ha, 2004에 재인용)는 부부가 각기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특히, 연령은 세대 간의 차이를 대변하기 때문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인데(Ha, 2004), Lee (2002)의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젊은 부부일수록 애정이나 친밀감의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혼만족도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임부를 대상으로 측정한 Ha (2004)의 연구 결과보다 낮은 점수이지만 일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Lee (2002)의 연구결과보다는 약간 높은 점수이다. 이와 같은 결혼만족도 수준은 대상자의 70% 이상이 34세 이하이며, 60% 이상의 대상자가 결혼기간이 3년 이하로 비교적 짧으며 대부분이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족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배우자 지지정도는 대상자의 결혼만족도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지지와 협조가 있을 때 부인과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Lee, 2002)을 입증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임신과 분만이 임부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겪어가는 경험임을 생각해 볼 때 태교에서의 남편의 지지는 매우 필요한데(Mun & Choi, 2002), 본 연구대상자는 배우자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으므로 태교실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태교실천정도는 임부를 대상으로 한 Ha (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태교는 우리 문화적 맥락 내에서 조상들로부터 후대 자손에게 전수되어 오는 전통적인 관습으로서, 전통태교에서 제시하는 임부가

지키거나 금해야 할 언어, 행동 및 음식과 약물 등의 내용이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라는 이유로 무시되기도 하였으나 (Mun & Choi, 2002), 본 연구결과나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임부들은 다양한 태교내용 중에서 금기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높이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im (2000)의 연구에도 임부의 88.0~99.1%가 태교로 금기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산전관리 시 임부들이 태교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임부들에게 태교에 관한 체계적이면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교실천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태아순위, 태교필요성, 태교시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 Mun과 Choi (2002)의 연구와 임부를 대상으로 한 Lindgren (2001)의 연구에서 초산인 경우 태교실천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95% 정도가 임신을 희망한 상태에서 초임부는 경임부에 비해 분만과 양육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태교에 관한 관심이 높고 실천정도도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대상자의 결혼만족도는 배우자 지지와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Lee (2002)의 연구에서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로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Spanier (1976)는 결혼의 질은 다른 대인관계의 질처럼 상대방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임부의 결혼만족도는 배우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지정도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사료된다.

결혼만족도는 태교실천과도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산모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Mun과 Choi (2002)의 연구결과와 임부를 대상으로 한 Kim (2000), Ha (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Ha (2004)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양육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임부의 결혼만족도는 태아에게 간접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주게 되며, 이때 임부는 남편의 역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혼만족도를 태교실천과 관련지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결혼만족도를 단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결혼만족도와 태교실천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태교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만족도, 태교필요성, 태아순위 등으로 나타나 Ha (2004)의 연구에서 결혼만

족도가 태교실천정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태교인식정도, 연령, 결혼만족도, 남편지지도, 가족형태, 출산경험, 임신 중 건강상태 등이 태교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Mun과 Choi (2002), Kim (200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임부의 결혼만족도는 태교실천에 강력한 영향요인이므로 임부의 태교 실천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러나 배우자 지지의 경우 태교실천과의 관계에서는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태교실천 영향요인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남편들은 태교의 주체는 여성이라는 인식이 강함과 동시에 남편과 주위사람들의 임신부에 대한 역할과 배려 면에서 산모가 생각하는 인식보다 뒤떨어져 있다(Yeon, 2001)는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임신부가 태교를 실천하는데 남편의 지지가 관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태교의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편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배우자 지지와 태교실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이들 변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이에 대한 규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임부가 태교를 실천하는데 결혼만족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대상자들이 실제적으로 태교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태교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태교교실의 운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임부가 태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여주어야 하므로, 이들이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부의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와 태교실천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태교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태교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정도 및 태교실천정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태교실천정도는 태아순위, 태교필요성, 태교시기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결혼만족도는 배우자 지지, 태교실천과 순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배우자 지지와 태교실천과도 순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대상자의 태교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만족도 21.7%, 태교필요성이 6.6%, 태아순위가 1.0%를 설명하여 총 29.3%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임부의 결혼만족도가 태교실천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임부의 태교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결혼만족도 요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태교 실천을 위한 임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REFERENCES

- Ahn, K. T. (2001). A study of related factors and practice of Taekyo on pregnant women's. *Clinical Nursing Research*, 5, 175-183.
- Burney, T. (2001). *Fetus has acquaintance*. Seoul: Samter.
- Burr, W. R., Leigh, G., Day, R., & Constantine, J. (1979).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2nd ed.). New York: Free Press.
- Devlin, B., Daniels, M., & Roeder, K. (1997). The heritability of IQ. *Nature*, 388(6641), 468-471.
- Erdfelder, E., Faul, F., & Buchner, A. (1996). G power: A general power analysis program.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28, 1-11.
- Gottman, J. M. (2002). Marital research in the 20th century and research agenda for the 21st century. *Family Process*, 41, 159-197.
- Ha, S. E. (2004). *The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marriage satisfaction of pregnant women and the degree of prenatal care practi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Jang, S. B. (1989). *An analytic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for sexual satisfaction in women who have had a hysterectom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E. S. (2000). *Factors influencing Taekyo in pregnant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H. J. (2008). A study of spousal support, the demand for health educ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1), 5-11.
- Lee, D. Y. (2002). *The relations of 'work-family conflict' and 'family-work conflict' with marital satisfaction among dual-earner coup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indgren, K. (2001). Relationships among maternal-fetal attachment, prenatal depression, and health practices in pregnancy.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4, 203-217.
- Mun, H. S., & Choi, E. S. (2002). A study on the cognition and practice of the delivered women and her husband for the fet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4), 583-594.
- Nam, I. S. (2010). *A comparative study on stress,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urban and rural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Shin, Y. B. (2000). *The study on recognition and practice of Taekyo by pregnant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Shin, Y. B., & Koh, H. J. (2000).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ractice of Taekyo by pregn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6(1), 142-152.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 15-28.
- The Great Encyclopedia of Nursing Science (1995). *The great encyclopedia of nursing science*. Seoul: 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Co.
- Yeon, J. E. (2001). *A comparison of perceptions and daily practices of Taekyo between parents to b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Yoo, A. J. (1992). *Toddler's education of traditional society in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